

가계의 경제적 불안과 소비행동*

Economic Distress of Households and Consumption Behavior*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조 교 정 혜 경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부교수 여 정 성

Research institute of Human Ecology, Seoul National Univ.
Assistant : Hye Kyung Jung
Dept. of Consumer studies & Resource management, Seoul National Univ.
Associate Prof. : Jung Sung Yeo

목 차

- | | |
|----------------|---------------|
| I. 문제제기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 결 론 |
| III. 연구방법 및 절차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conomic distress and consumption behavior changes of urban households. Data for this study were collected from 519 households who have resided in seoul area.

The results showed that the income distress was higher than the employment distress. The variables that influenced on income distress were mainly economic variables, while in the employment distress, social-demo variables were. According to the results that investigated the changes of consumption behaviors with respect to the dimensions of behavioral consumption, the quantity and price directive consumption changed greatly. Finally, socio-economic variables were affecting on consumption behavior through the economic distress directly and indirectly.

I. 문제제기

최근 우리 나라의 소비환경은 IMF 구제금융시대를 겪으면서, 무엇보다도 소비자

개인의 가처분소득이 급격하게 변화하였다. 장래소득의 불확실성과 가계를 둘러싸고 있는 경제상황의 불투명 속에서 가장의 실직으로 인한 실질소득의 감소, 자산 가치의 하락 등으로 인한 가계자원의 축

* 본 연구는 1999년도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부설 생활과학연구소의 일부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소는 가계의 소비지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윤정혜·성영애, 1998). IMF 구제금융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1)에 의하면, 소비자들을 가장 불안하게 하는 것은 소득감소, 실직, 물가상승이며, 대부분의 가계에서 수입이 줄어들었고 그 결과 소비지출을 줄였다. 또한 내구재 구매를 연기·취소하고, 주로 대형 할인점이나 세일 중인 백화점을 이용하고, 상품 선택 기준으로 가격과 내구성을 주로 고려하겠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소비행태나 라이프스타일이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그들의 소비습관과 구매행동을 비호의적인 경제적 상황에 맞추어 조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일부 소비자들의 경우는 소득이 오히려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따라서 구매력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금융연구원(1998)은 '경제환경변화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IMF 구제금융 이후 빈부격차가 80년대 초반으로 회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부유층 소비자의 소비행동은 경제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반면에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로 인해 다소 변화를 경험할 수도 있다. 이러한 변화가 바람직한 소비행동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자칫하면 극단적인 방향으로 소비행동이 변화할 수도 있다.

이에 현재 가계가 경험하고 있는 경제적 불안을 극복하고 바람직한 소비행동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가계의 경제적 불안수준과 소비행동의 변화양상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가계의 경제적 불안 수준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수를 조사하고, 현재의 불리한 경제환경 하에서 가계가 소비행동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가계의 경제적 불안수준, 변화된 소비행동, 그리고 두 변수간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가계의 경제적 상황과 행동 유형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제적 불안수준과 소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수를 규명함으로써 경제적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고, 보다 효율적인 소비행동 수준을 높이는데 필요한 방향제시와 정보제공에 도움이 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경제적 불안의 개념

경제적 불안(economic distress)은 Voydanoff, Donnelly, Fine(1984; 1988; 1989; 1990) 등이 사용한 용어로, 가계의 경제적 복지에 영향을 주는 가계구조적 요인, 즉 소득과 고용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주관적 감정과 객관적 상태를 의미한다. Voydanoff와 Donnelly(1988)는 경제적 불안을 <표 1>과 같이 고용과 소득의 객관적·주관적 측면을 포함하는 다차원적 개념으로 보았다.

<표 1> 경제적 불안의 개념

구분	객관적	주관적
고용	고용 불안정성 (employment instability) 실업기간 실업 횟수, 취업 횟수 불완전고용정도 하위직으로의 이동 강제조기퇴직	고용 불확실성 (employment uncertainty) 실업 가능성에 대한 추측 실업 기간에 대한 추측 재취업 가능성 추측
소득	경제적 박탈 (economic deprivation) 저소득 부족한 재정자원 소득 감소	경제적 긴장 (economic strain) 재정자원의 적정도 재정적 염려와 걱정 장래 경제상황에 대한 기대

자료 : Voydanoff & Donnelly(1988)

1) 소득불안과 고용불안

Voydanoff 등은 경제적 불안에 관한 일련의 연구(1984; 1988; 1989; 1990)에서 경제적 불안을 두 개의 하위영역으로써 구성하였다. 사회의 실업과 인플레이션은 가계의 소득과 고용에 영향을 주게 되어, 가계는 소득과 고용의 측면에서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그는 이 두 영역에서의 불안정이나 불

1) 대우경제연구소, 분기별 국내경제전망, 1998:1/4~1999: 2/4, 대한상공회의소, 「IMF 시대의 소비행태와 구매패턴변화 조사」, 1998년 5월.

확실성이 가계의 경제적 불안을 가져온다고 보았다.

한편, Lorenz 등(1991)은 소득 부적정, 가계자산과 자원의 감소, 고용불안정으로부터 경제적 곤란이 야기된다고 보았고, 가계원이 부족한 가계자원으로 요구를 충족하면서 느끼게 되는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인 곤란 정도, 즉 경제적 압박감으로써 경제적 곤란을 측정하였다. 그들은 경제적 곤란의 원인을 소득, 자산, 고용의 세 영역에서 찾음으로서 가계의 경제적 구조를 Voydanoff 등보다 더 세분하여 구성하였다. Conger 등(1990)은 3개 하위 영역, 즉 빈곤선에 대한 소득의 비율, 경제적 압박, 불안정한 직장생활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측정하였다.

경제적 불안의 측정에 있어, Voydanoff 등은 Lorenz, Conger 보다는 덜 세분화된 척도에 의해 경제적 불안을 측정하였지만, 기본적으로 Lorenz, Conger 등이 사용한 척도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Voydanoff 등의 경제적 불안 개념을 이용하여, 가계의 경제적 불안을 소득과 고용 영역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2) 주관적 불안과 객관적 불안

많은 연구에서 경제적 복지를 논할 때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평가와 자기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 가운데 어떤 것이 중요한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Cambell, 1976; Harold-Goldsmith, 1987). 그러나 이 두 가지 방법은 상호 배타적이라기보다는 서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상호보완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김민정, 1995). 또한 경제적 복지에 대한 개념 정의에 있어, 황덕순(1995)은 경제적 상태에 대한 상황 그 자체(객관적 측정)와 그에 대한 느낌 판단(주관적 측정)이 함께 고려될 때 적절한 측정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Voydanoff(1984)도 소득과 고용 영역에서의 경제적 불안을 주관적·객관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가계가 경제적 불안의 하위영역에 대하여 스스로 위협을 느끼는 불안감이 주관적 불안이며, 사회적 기준과 비교했을 때 불안이라고 판단되는 상태가 객관적 불안이다. 이러한 구성은 가계의 경제적 상황에 보다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한다(황덕순, 1995).

특히, 가계의 경제적 상태와 같은 추상적 개념은 주관적·객관적 측면을 포함하여 측정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득과 고용영역에서의 경제적 불안을 주관적·객관적 측면에서 측정한 Voydanoff 등의 척도가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2. 경제적 불안에 따른 소비행동의 변화

소비에 대한 전통적인 경제학 이론에서는 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상황의 영향은 그 기간동안에 실질 구매력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함으로써 결정되어질 수 있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실질 소득은 스태그플레이션 동안에 감소하거나 정체되므로, 소비자들은 덜 소비하게 되며 더 값싼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대체품을 이용하기 위해 구매 습관을 변화시킨다.

Oumbl(1983)은 경제상황의 악화가 명백하게 소비자자들의 소비 패턴, 그들의 쇼핑 습관들을 바꾸었으며, 이때 소비자들의 성향은 감정적인 구매결정과정보다 합리적인 구매결정과정에 더욱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 주장과 일치하게 Katona(1971)가 경제적 변동에 대한 가계의 대처 메카니즘에 대해 물어보았을 때,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절약하거나 보통때보다 덜 구매하고, 특정 구매를 지연한다고 대답하였다.

동남아시아 난민들이 경제적 후퇴기동안 북아메리카에 정착하면서 경험하는 경제적 불안과 그에 따른 부정적인 결과를 연구하면서, Johnson(1988)은 예산 조정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더 값싼 집으로 이사, 주거 공유, 저축 사용, 구매 연기, 중고의 구매 증가, 더 낮은 품질의 제품 구매, 더 적은 수의 항목들을 구매, 교통 패턴의 변화, 판매에 관심을 기울임 등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항목들은 황덕순(1995)의 연구에서도 비슷하게 제시되었다.

이처럼 경제적 불안에 대한 반응으로 소비자들이 취하는 소비행동의 변화에는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들을 찾을 수 있다. 소비자는 더 낮은 가격을 찾거나, 더욱 경제적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제품이나 서비스의 사용을 중단한다. 기본적으로 소비자 행동은 목표 지향적이기 때문에, 단순하고 무원칙적으로

소비행동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다양한 생활 영역에서 소비행동을 변화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소비행동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소비행동을 단편적으로 살펴보기보다는 독립적인 영역으로 체계성을 가지고 소비행동의 변화를 다루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기에 적절한 개념이 Raaij와 Eilander(1983)에 의해 개발된 척도이다(〈표 2〉참고). 그들은 가격, 양, 질 그리고 사용양식에 근거해서 소비자의 절약 행동들을 구분하였다.

〈표 2〉에서 보는 소비행동들은 오랜 기간동안 패 널 자료를 가지고 검증한 결과, 위계적 순서를 가지고 있다(Raaij & Eilander, 1983). 가격 중심적인 소비행동은 쉽게 받아들여지며, 양 중심적인 소비행동은 소비 수준에 대해 영향을 미친다. 품질 중심적인 소비행동은 모순을 내재하는데, 이는 품질을 증가시키거나(내구성) 또는 품질을 감소시킬 수 있음(더 낮은 가격)에서 비롯한다. 사용 양식의 변화는 그 사람의 소비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며 가장 최후에 발생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것이다. 가계생산과 DIY는 전문 서비스를 대체하며, 자발적 간소화(voluntary simplicity)는 더욱 금욕적인 사용양식으로의 변화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나 예전에는 사용했던 어떤 사치재 없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Raaij

와 Eilander는 젊은 사람들일수록 물질적인 견해를 덜 가지는 경향이 있으며, 자발적으로 단순한 사용양식을 받아들이기 쉽다고 보았다.

대체로 구매 연기와 나눠쓰기/빌려쓰기 같은 행동들은 내구재에 속하고, 대부분의 가격 중심적인 소비행동들은 비내구재에 속하며 DIY는 상업서비스를 대체한다. 내구재는 나중에 대체할 수 있다는 선택권을 가지고 이러한 내구재의 대체는 자유재량적인 특성을 가진다. Katona(1960)는 소비자의 자유재량적인 결정권 때문에 소비자가 경제에 대해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가족의 대처행동이라는 광범위한 주제하에서 소비행동의 변화를 부분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러나 가게내 각 비목별 소비행동간의 관계 및 변화된 소비행동이 보이는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Raaij와 Eilander에 의해 개발된 척도가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자료분석

1) 조사도구

본 논문의 조사도구는 질문지로서 경제적 불안 정도를 묻는 문항과 6가지 지출 비목에 대한 소비행동을 묻는 문항, 그리고 조사가계대상의 특성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경제적 불안은 소득불안, 고용불안으로 구성되었으며, 각각 주관적·객관적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생활전반에 걸친 소비행동을 살펴보기 위해 가계의 10대 지출비목 중 주거비, 보건의료비, 기타소비지출(잡비포함)을 제외²⁾하고 교육비와 교양 오락비를 묶어 6대 지출 비목에 대해 가격, 양, 질, 사용 양식이라는 상위차원(Raaij & Eilander, 1983)을 근거로 문항을 작성하였다.

2) 보건의료비와 기타소비지출(잡비)은 측정상의 어려움 때문에, 주거비는 단시일내에 변화시킬 수 없는 성격 가지고 있어 주거생활의 변화가 뚜렷이 감지될 수 없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표 2〉 10가지 소비자 절약 행동

차원	소비자의 절약 행동
가격	1. 더 값싼 상점, 할인점
	2. 더 값싼 브랜드
	3. 세일과 바겐
양	4. 덜 구매
	5. 구매 연기 및 지연
질	6. 더 높은 품질, 내구성
	7. 더 낮은 품질(더 낮은 가격)
사용 양식	8. DIY 제품
	9. 나눠쓰고 빌려쓰기
	10. 자발적 간소화(voluntary simplicity), 금욕주의

자료: Raaij & Eilander(1983)

독립변수들 중,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는 변수들을 통계적 기법을 통해 제거한 결과 최종적으로 10개의 독립변수가 자료분석에 이용되었다.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서울시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60세 이하의 주부들을 대상으로 1998년 9월 1일부터 9월 18일까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640부를 배포하였고,

회수된 설문지 중 부실 기재된 것을 제외한 최종 519부를 분석에 포함시켰다.

자료의 처리는 SA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포,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회귀분석, 경로 모형 분석으로 분석하였다.

2. 조사대상 가계의 특성

조사대상 가계의 특성은 <표 3>과 같다. 가계의

<표 3> 조사대상가계의 특성

변수	범주	빈도(%)	변수	범주	빈도(%)
남편의 연령	30세 이하	5(1.0)	월평균 소득	100만원 이하	40(8.7)
	30~39세	145(29.4)		~200만원	127(27.7)
	40~49세	298(60.3)		~300만원	148(32.2)
	50세 이상	46(9.3)		~400만원	79(17.2)
	계	494(100.0)		400만원 이상	65(14.2)
	평균	42.2세		계	459(100.0)
남편의 교육수준	중졸 이하	11(5.3)		평균(만원)	243.9
	고졸	159(31.5)		표준편차	151.5
	대졸 이상	319(63.2)	자산	5천만원 이하	136(31.3)
계	505(100.0)	~1억		78(18.0)	
남편의 직업지위	전문·경영관리직	79(15.6)		~3억	138(31.8)
	전문기술직	41(8.1)		~6억	71(16.4)
	사무직	168(33.3)		6억 이상	13(2.5)
	판매서비스·생산직	110(21.8)	계	434(100.0)	
	자영업	84(16.6)	평균(만원)	15421.2	
	무직	23(4.6)	표준편차	17253.8	
	계	505(100.0)	부인의 소득	없음	62.2
가족원 수	4명 이하	295(61.7)		~ 50만원	8.1(21.5)
	5명	127(26.6)		~100만원	12.6(33.3)
	6명 이상	56(11.7)		100만원 이상	17.1(45.2)
	계	478(100.0)	계	492(186)	
주택소유 형태	임대	168(32.9)	평균(만원)	46.5(123.1)	
	자가	343(67.1)	표준편차	83.5(94.9)	
	계	511(100.0)	부채	0원	181(39.2)
이전소득	없음	97.1		~1000만원	85(18.4)
	100만원 이하	1.3(42.9)		~5000만원	141(30.5)
	100만원 이상	1.6(47.1)		~1억	36(7.8)
	계	490(14)		1억 이상	19(4.1)
	평균(만원)	4.98(174.5)	계	462(100.0)	
	표준편차	38.05(150.1)	평균(만원)	2045.6	
			표준편차	5182.6	

*이전소득과 부인 소득의 경우, 괄호안은 '없음'을 제외한 N과 평균·표준편차를 의미함.

〈표 4〉 경제적 불안의 수준

상위 척도	N	평균(표준편차)	하위 척도	N	평균(표준편차)
소득 불안	361	7.12(1.29)	객관적 소득불안	371	3.50(.75)
			주관적 소득불안	363	3.62(.68)
고용 불안	295	5.43(1.52)	객관적 고용불안	363	2.31(.72)
			주관적 고용불안	303	3.09(1.04)

소득을 살펴보면, 월평균 소득은 평균 243,9만원이고 1년전 월평균 소득은 294,2만원이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도시가계조사의 결과³⁾보다는 다소 과장된 경향이 있으나, IMF 구제금융 이후 각 가계에서 소득감소를 매우 크게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택은 자가인 경우가 67.1%로, 이는 우리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한 1995년 주택 보급률 80.6%(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1995)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전소득은 평균 4.9만원이지만, 이전소득을 가진 가계가 경우 2.9%밖에 되지 않아 이전소득이 없는 가계를 제외한 평균 이전소득은 174만원에 달했다.

IV. 연구 결과 및 해석

1. 경제적 불안의 전반적 경향

경제적 불안의 수준에 대한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소득 불안은 두 하위 차원에서 중간점수를 넘어 전반적으로 가계가 소득 정도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고용 불안은 상대적으로 소득 불안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특히, 고용 불안의 하위 차원 중 객관적 고용불안은 중간점보다 낮아 객관적인 고용 불안의 상태가 그리 나쁘지만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황덕순(1995)의 연구에서는, 소득에 대한 불안은 그리 높지 않은 반면에 고용에 대한 불안이 상당히 높았는데, 이는 경제적 상황이 급변한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황덕순의 연구시점인 1995년에 비해 1998년은 물가상승률이나 자산 디플레이,

〈표 5〉 경제적 불안 수준별 분포

집 단	접 수	소득불안(N)	고용불안(N)
하위집단	2점 ~ 4점	36(13)	40.3(119)
중위집단	5점 ~ 7점	64.3(232)	49.8(147)
상위집단	8점 ~ 10점	32.1(116)	9.8(29)
합 계		100.0(361)	100.0(295)

임금삭감 정도가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변화된 경제 상황이 소득 불안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으며, 고용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고용불안이 낮게 나타난 것은 실직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만 실제로 실직을 경험한 사람이 조사대상에서 극히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직업 분포 자영업이 21%이상이라는 데서 기인한다. 이들의 경우 실직이라는 상황보다는 소득 감소라는 상황이 더 영향력있게 작용한 것이다.

경제적 불안 수준에 따라 집단을 나눈 결과가 〈표 5〉이다. 소득 불안에 있어서 하위집단은 매우 낮으며, 중위집단과 상위집단이 95%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매우 높은 수준의 소득 불안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고용 불안에서는 상위집단의 비율이 9.8%만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하위집단이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각 가계가 고용보다는 소득에 대해 더 많은 불안을 느끼고 있음을 의미한다.

3) 98년 2/4분기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209,4만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5.3%가 감소하였다(도시가계조사, 통계청, 1998).

2. 경제적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경제적 불안에 대한 관련 변수들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가계의 소득 불안에서는 남편의 취업여부, 월평균 소득, 주거소유형태, 자산, 부채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밝혀졌다. 부채가 소득 불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채를 통해 실질 소득의 증감이 영향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표준회귀계수를 살펴보면, 소득 불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월평균 소득으로 가장 큰 부적 영향을 미쳤으며, 그 다음으로 주거소유형태, 자산의 크기, 남편의 취업여부, 부채 순이었다.

고용 불안에서는 남편의 연령, 남편의 취업여부, 남편의 교육수준, 가계원 수, 월평균 소득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 불안에 영향을 미쳤던 변수들과는 다소 다른 성격의 변수들이다. 소득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주로 가계의 경제적 특성 변수라고 하면, 고용 불안에 영

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가계의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소득 불안을 측정하는데 있어 월평균 소득, 자산 등의 개념을 사용한 반면에, 고용 불안의 경우 가장의 고용지위나 고용상태를 결정하는 변수들이 주로 연령, 교육수준 등이기 때문이다. 소득 불안에서 낮은 영향력을 보였던 남편의 취업여부가 .35의 정적 영향력을 갖으며, 남편의 교육 수준도 .20이 넘는 부적인 영향력을 나타내, 고용 불안에서는 소득관련 변수들보다는 인구·사회 관련 변수들이 높은 영향력을 가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3. 소비행동의 전반적 경향

1) 비목별 소비행동의 변화

6개 비목별 소비행동의 변화 정도에 대한 결과가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식료품이나 가사용품 및 가구집기 비목에서는 할인점이나 대형매장에서 가격이 저렴한 제품을 구매한다는 응답이 대체로 높았다. 이는 소비자들이 가격에 민감해짐과 동시에 실용성을 중시하는 소비가치관이 나름대로 정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저렴한 곳에서 외식을 한다든지, 의류의 구입 횟수를 줄였다는 응답에서 과소비성 지출이 감소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거의 전 비목에 걸쳐 품질 관련 문항에서는 낮은 점수를 보여, 소비자들이 품질에 높은 가치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내구성이 좋은 제품을 구매하거나 제품의 보관·관리에 더 신경을 쓴다는 항목에도 중간 이상의 점수를 보여, 소비자들이 내구성을 중시하는 소비행동을 보이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상대적으로 많이 줄이는 비목은 의복이나 교통이고, 교육·교양오락을 가장 덜 줄인 것으로 나타나서 전체적으로 '여유있는 생활'에 지출하던 비용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복과 자동차 여행은 가계의 예산이 팍팍해졌을 때 감소될 수 있거나 최소한 연기될 수 있는 소비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한 Poser와 Shipchnadler(1979)의 결과와 일치한다.

<표 6>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경제적 불안 중회귀분석

독립변수	소득불안		고용불안	
	b	β	b	β
남편연령	.01	.04	.03	.11*
남편 취업여부	.71	.11***	.48	.35***
남편 교육수준	-.15	-.06	-.52	-.20***
가족원 수	.05	.03	.29	.16**
부인의 소득	-.17	-.06	.17	.05
이전소득	-.005	.0009	-.41	-.06
월평균 소득	-.004	-.45***	-.001	-.15*
주거 소유형태	-.38	-.13***	-.12	.03
자 산	-.00002	-.32***	-.00007	-.09
부 채	.00002	.10**	.00002	.01
상 수		8.45		4.67
Adjusted R ²		.6641		.3224
R ²		.6741		.3471

*p < .05 **p < .01 ***p < .001
 *가변수: 남편이 취업한 가계=0
 부인 소득이 없는 가계=0
 이전 소득이 없는 가계=0

〈표 7〉 비목별 소비행동의 변화

항 목	평균점수 (편차)	항 목	평균점수 (편차)
식료품		의 복	
① 할인점이나 대형매장에서 저렴하게 구매하였다.	384(113)	① 가격이 저렴한 상표의 의류를 구입했다.	418(1.01)
② 이전보다 좀 더 저렴한 곳에서 외식을 한다.	367(124)	② 할인점보다 상설매장에 가서 구입하였다.	419(1.01)
③ 이전보다 식료품 구매량을 더 줄였다.	368(114)	③ 이전보다 의류의 구매횟수를 줄였다.	441(0.85)
④ 가능한 한 버리지 않고 알뜰하게 사용한다.	440(0.83)	④ 의류의 구입을 미루었다.	415(1.04)
⑤ 쉽게 상하지 않는 식료품을 구매한다.	350(123)	⑤ 의복의 보관·관리에 더 신경을 써 오래 입는다.	406(0.98)
⑥ 품질이 다소 떨어지는 식료품을 구매하였다.	257(122)	⑥ 품질은 좀 떨어지지만 저렴한 옷을 구입하였다.	360(1.23)
⑦ 외식을 자제하고 가능한 집에서 만들어 먹는다.	438(0.89)	⑦ 될 수 있으면 수선해서 다시 입으려고 했다.	398(1.03)
⑧ 배달해 먹는 우유나 야쿠르트를 그만 두었다.	303(1.61)	⑧ 아이 옷은 물려 입히거나 친척에게서 얻어 입힌다.	373(1.30)
에너지(수도·광열)		교육·교양 오락	
① 공과금은 기일내에 내거나 자동이체를 한다.	452(0.99)	① 더 저렴한 양육시설이나 학원/과외로 바꾸었다.	339(1.38)
② 할인 시간대에 전기나 수도물을 사용한다.	272(1.19)	② 어른이나 아이들의 용돈을 줄였다.	374(1.19)
③ 가능한 전기나 수도물 등 에너지 사용을 줄인다.	401(0.96)	③ 자녀의 학원/학습지의 수를 줄이거나 그만두었다.	341(1.38)
④ 전기코드는 빼놓고 빈방의 전등은 반드시 끈다.	410(1.00)	④ 신문/잡지의 구독과 연극·영화의 관람을 줄였다.	373(1.23)
⑤ 에너지효율이 좋은 전기/전기제품을 사용한다.	377(1.09)	⑤ 오래동안 사용할 수 있는 학용품을 구입하였다.	385(1.10)
⑥ 냉·난방 온도를 예전보다 낮추었다.	385(1.12)	⑥ 그룹과외나 수강인원이 더 많은 학원으로 바꾸었다.	290(1.42)
⑦ 청소기 대신 빗자루로 청소하거나 손빨래를 한다.	307(1.43)	⑦ 아이의 간단한 용품이나 장난감은 직접 만들어준다.	265(1.31)
⑧ 전기 제품의 사용을 중지한다.(예: 에어컨)	350(1.34)	⑧ 아이의 장난감이나 책은 얻어오거나 재활용한다.	351(1.32)
가사용품 및 가구집기		교 통	
① 저렴한 가격대의 제품을 구매하였다.	397(1.10)	① 자가용보다 대중교통수단을 더 이용하였다.	389(1.23)
② 더 값싼 할인점이나 대형매장을 이용하였다.	404(1.11)	② 택시보다는 버스나 무료 제공 버스를 이용한다.	399(1.15)
③ 이전보다 가구나 가사용품의 구매량을 줄였다.	431(0.93)	③ 이전보다 운전 횟수를 줄였다.	379(1.19)
④ 가구나 가사용품의 구매를 연기하였다.	416(1.12)	④ 바꾸려던 자동차를 더 쓰기로 했다.	401(1.17)
⑤ 내구성이 좋은 가구나 가사집기를 구매하였다.	357(1.24)	⑤ 평상시에 자동차를 잘 정비해서 사용한다.	413(0.99)
⑥ 품질이 다소 떨어지는 제품을 구매하였다.	237(1.24)	⑥ 이전보다 자동차 유지에 덜 신경쓴다.	366(1.20)
⑦ 가구나 설비에 고장이 나면 직접 고친다.	339(1.30)	(예 : 세차 및 정비)	
⑧ 가구를 손질하여 사용하거나 주위에서 얻는다.	282(1.40)	⑦ 차는 직접 세차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다닌다.	402(1.16)
		⑧ 아예 운전을 그만 두었다.	215(1.50)

2) 차원별 소비행동의 변화

가계가 어떠한 방향으로 소비행동을 변화시키는지 살펴보기 위해, 차원별로 가격 중심, 양 중심, 품질 중심, 사용양식 중심 소비행동의 변화 정도를 분석하였다. 각 차원별 소비행동의 평균 변화정도가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가장 높은 변화를 보인 것은 양 중심 소비행동으로 중간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로써 가계가 소득 감소같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때 대체로 제품과 서비스의 구매량 감소라는 대안을 많이 선택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가격 중심 소비행동

〈표 8〉 차원별 소비행동 평균 점수

차 원	평균점수(표준편차)
가격 중심 소비행동	7.62(1.29)
양 중심 소비행동	7.90(1.40)
품질 중심 소비행동	6.90(1.36)
사용양식 중심 소비행동	6.56(1.64)
전 체 평 균	7.20(1.33)

도 비교적 높은 점수를 나타내, 경제 침체에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상품 구매를 중지하거나, 덜 사거나, 할인폭이 큰 상품을 사거나 하는 등의 절약

행태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품질 중심 소비행동과 사용양식 중심 소비행동은 전반적으로 가격 중심 소비행동이나 양 중심 소비행동보다는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소비자들은 자신의 소비행동에서 명시되어 있는 확립된 사용양식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소비자 행동의 변화가 처음에는 소비자의 사용양식에 가장 적은 영향을 미치는 영역에서 이루어진다고 한 Rao(1980)의 주장과 일치한다.

일반적으로 가계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면, 일단 가격과 양을 중심으로 소비행동을 가장 많이 변화시키게 된다. 그러나 품질 관련 문항에서의 낮은 점수에서 알 수 있듯이, 가격에 민감해진다는 것이 반드시 저질의 제품 구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즉, 소비자가 예전보다는 낮은 가격과 적은 양에 반응하고 있지만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차원별 소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각 차원별 소비행동의 변화 정도에 가계의 사회

경제적 변수가 미치는 독립적인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가격 중심 소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족원수, 월평균 소득, 부채이며, 양 중심 소비행동과 품질 중심 소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족원수, 월평균 소득으로 동일하다. 그리고 사용양식 중심 소비행동에는 가족원수, 월평균 소득, 부채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족원수의 정적 영향력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가족원수가 증가함에 따라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므로, 한정된 예산내에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부득이 소비행동을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시킬 수밖에 없다. 가족원 수와 월평균 소득은 모든 소비행동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계 수요의 증대와 공급 능력이 소비행동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월평균 소득이 경제적 불안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소득이 경제적 안정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밝힌 김경자(1991)의 미국 가계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소득이 경제적 불안을 경감시

<표 9> 차원별 소비행동의 중회귀분석

독립변수	종속변수		가격 중심		양 중심		품질 중심		사용양식 중심	
	b	β	b	β	b	β	b	β	b	β
남편 연령	-0.08	-0.05	.02	.01	.04	.02	.03	.01		
남편 취업여부	1.08	.02	3.17	.06	3.38	.07	5.78	.09		
남편 교육수준	-0.50	-0.03	-1.55	-0.09	-0.52	-0.03	-2.58	-.13*		
가족원 수	1.57	.15**	1.29	.11*	1.59	.15*	2.31	.18***		
부인의 소득	-1.59	-0.09	-.24	-.01	.70	.04	.28	.01		
이전 소득	1.65	.04	.66	.01	.58	.01	-2.43	-.05		
월평균소득	-0.01	-.30**	-.02	-.34**	-.01	-.30**	-.02	-.32**		
주거 소유형태	1.00	.05	.26	.01	-.37	-.01	-1.02	-.04		
자 산	-.00006	-.14	-.00004	-.10	-.00002	-.04	.00006	-.11		
부 채	.0002	.13*	.0001	.09	.0001	.06	.0002	.11*		
상 수		47.81		49.72		38.26		43.55		
R ²		.2122		.2229		.1547		.2946		

*p< .05 **p<.01 ***p<.001

*가변수 : 남편 취업가계=0, 부인 소득이 없는 가계=0, 이전 소득이 없는 가계=0

켜주면서, 동시에 소비행동의 변화를 덜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통해 주로 저소득층이 다양하게 소비행동을 변화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부족한 자원을 가지고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스스로 일을 해내거나, 값싼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돌아 다니고, 중고 제품을 사용하는 등의 행동을 많이 보이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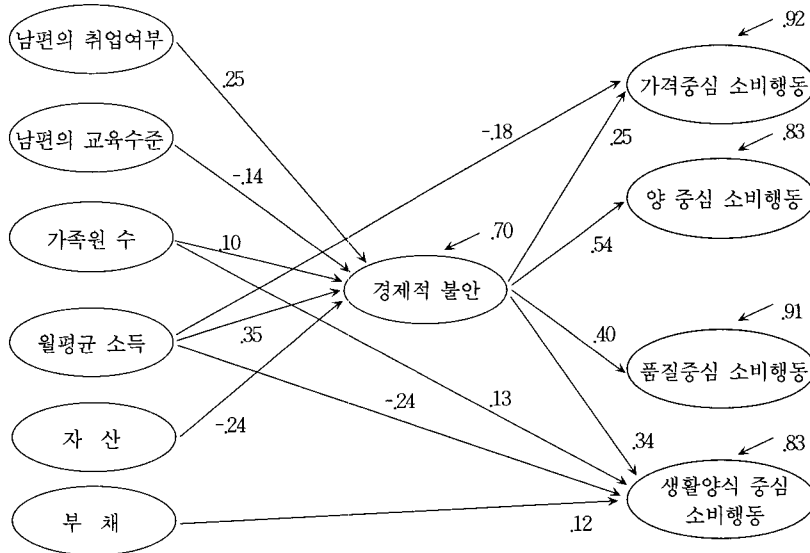
5. 사회경제적 변수, 경제적 불안, 소비행동간의 인과관계

앞에서는 경제적 불안을 소득과 고용 영역으로 나누어서 분석하였으나, 본 장에서는 경로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경제적 불안의 4개 하위척도들을 모두 합해 경제적 불안의 척도로 사용하였다. 인과모형의 회귀분석 결과를 <표 10>에 제시하였다.

<표 10> 경제적 불안과 차원별 소비행동간 인과모형의 회귀분석 결과(Beta값)

독립변수	종속변수				
	경제적 불안	가격 중심 소비행동	양 중심 소비행동	품질 중심 소비행동	사용양식 중심 소비행동
남편 취업여부	.25***				
남편 교육수준	-.14***				
가족원 수	.10*				.13*
월평균 소득	-.35***	-.18***			-.24***
자 산	-.24***				
부 채				.12*	
경제적 불안		.25***	.54***	.40***	.34***
R ²	.5060	.1531	.3004	.1649	.2971

* < .05 ** < .01 *** < .001



<그림 1> 경제적 불안과 각 차원별 소비행동 관련변수의 인과모형

〈표 10〉을 토대로 경로계수를 확인하여 사회경제적 변수, 경제적 불안, 각 차원별 소비행동의 가설적 인과모형을 수정한 경로분석 결과를 〈그림 1〉에 제시하였다.

〈표 11〉은 인과모형에서 각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인과적 효과를 직접효과와 매개변수를 통한 간접효과로 분해한 결과이다. 경로분석 결과를 통하여 새롭게 밝혀진 사실과 변수들의 간접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총 경제적 불안은 각 차원별 소비행동에 25에서 54에 이르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져 경제적 불안이 소비행동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원수, 월평균 소득

은 소비행동에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동시에 가지는 변수로 나타났다.

각 차원별로 소비행동과의 인과모형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가격중심 소비행동의 경우, 남편의 취업 여부 및 교육수준, 가족원수, 월평균소득, 자산의 크기가 경제적 불안을 매개변수로 하여 가격 중심 소비행동에 간접적 효과를 미치고 있었다. 월평균 소득은 부적인 직접효과(-.18) 및 간접효과(-.092)를 통해 가격 중심 소비행동에 영향을 미쳤으며, 가장 큰 총인과 효과를 보였다. 그 다음으로 경제적 불안(257), 자산(-213)이 영향을 미쳤다.

둘째, 양 중심 소비행동, 품질 중심 소비행동의 인과모형 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변수들이 경제적

〈표 11〉 사회경제적 변수, 경제적 불안, 각 차원별 소비행동간 인과관계

	종속변수 독립변수	인과효과			비인과효과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가격중심 소비행동	남편 취업여부		.006	.006	.042	.108
	남편의 교육수준		-.037	-.037	-.107	-.144
	가족원수		.028	.028	.073	.101
	월평균 소득	-.184	-.092	-.272	-.003	-.381
	자산		-.062	-.062	-.213	-.275
	경제적 불안	.257		.257	.120	.377
양 중심 소비행동	남편 취업여부		.140	.140	.002	.138
	남편의 교육수준		-.078	-.078	-.123	-.201
	가족원수		.059	.059	-.020	.039
	월평균 소득		-.196	-.196	-.246	-.442
	자산		-.133	-.133	-.154	-.287
	경제적 불안	.548		.548	.000	.548
품질중심 소비행동	남편 취업여부		.104	.104	.044	.148
	남편의 교육수준		-.058	-.058	-.080	-.205
	가족원수		.044	.044	.058	-.185
	월평균 소득		-.145	-.145	-.108	-.343
	자산		-.098	-.098	-.103	.378
	경제적 불안	.406		.406	.000	.406
사용양식중심 소비행동	남편 취업여부		.088	.088	.101	.189
	남편의 교육수준		-.049	-.049	-.243	-.291
	가족원수	.138	.037	.175	-.068	.107
	월평균 소득	-.240	-.124	-.364	-.099	-.463
	자산		-.084	-.084	-.239	-.323
	부채	.124		.124	-.258	.088
경제적 불안	.346		.346	.138	.484	

*가변수 : 남편이 취업한 가계=0, 부인 소득이 없는 가계=0, 이전 소득이 없는 가계=0

불안을 매개로 하여 소비행동에 간접적인 영향만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소비행동의 인과모형에서 경제적 불안은 높은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져 양 중심적인 소비행동과 품질 중심적인 소비행동을 변화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계소득이나 자산, 주택 소유 여부 등과 같은 객관적인 경제상태를 나타내 주는 변수보다 가계의 경제상태에 대한 주관적인 인지가 가계의 소비행동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양 중심 소비행동의 인과모형 결과에서 경제적 불안의 총인과효과는 548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가계가 경제적 위기의식을 느낄 때 가장 쉽게 행할 수 있는 행동들로 내구재 구입을 연기하거나 필수재 구입량을 줄이는 행동을 하기 때문일 것이다.

셋째, 사용양식 중심 소비행동의 인과모형 결과는 다른 소비행동들과는 달리 다양한 여러 변수들이 직접 및 간접 효과를 미치고 있다. 가족원수와 월평균 소득은 경제적 불안을 매개변수로 하여 사용양식 중심 소비행동에 영향을 미칠뿐 아니라 직접적으로도 상당히 큰 효과를 가진다. 특히 다른 소비행동에서는 유의한 효과를 미치지 않았던 부채가 사용양식 중심 소비행동으로 변화시키는데 직접적인 효과를 가졌다. 이는 IMF 체제하의 고금리 상태에서 가계의 총부채액이 많다는 것은 그 만큼 가계의 부채상환 부담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이에 가계는 과감한 소비행동의 변화를 피해 자원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고자 할 것이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가계의 경제적 불안을 살펴보고, 소비행동의 변화방향과 정도를 알아보았다. 또한 가계의 경제적 불안수준과 변화된 소비행동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첫째, 가계의 경제적 상태에 대한 불안에서 고용 불안보다 소득불안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현재의

경제환경의 악화가 주로 저소득층, 교육이 낮은 계층, 그리고 실직자 가계에 가장 심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낮은 사회계층에 속하는 가계는 상승하는 물가를 따라잡는데 어려움을 가장 많이 겪을 뿐 아니라 동시에 소득 감소를 경험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이들이 갖는 경제적 불안감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대처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비록 별 소비행동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상대적으로 많이 줄이는 비목은 의복, 교통이고, 교육·교양오락을 가장 덜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복과 교통비목이 교육·교양오락보다 더 선택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경제환경의 악화에 직면한 가계가 품질이나 사용양식 중심 소비행동보다 가격이나 양 중심 소비행동에 대해 더 많은 변화를 나타냈다. 또한 소득이 적고 가족원수가 많은 가계일수록 이러한 각 차원별 소비행동을 많이 변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효율적인 소비행동이 가능하도록 저소득층을 위한 소비자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넷째, 가계의 사회경제적 특성들이 경제적 불안을 매개로 하여 각 차원별 소비행동에 직·간접적 효과를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경제적 불안이 가계의 소비행동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임을 의미한다. 이때 지나친 경제적 불안감은 가계의 소비행동을 극단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도 있으므로 가계가 지나친 경제적 불안감을 경험하지 않도록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할 수 있다.

첫째, 가계의 경제적 불안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소비행동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저소득층이나 실직자 가계를 위한 소득보전정책과 실효성있는 고용정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소득관련변수가 경제적 불안과 소비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밝혀져, 저소득층이 경제적 불안뿐만 아니라 소비행동에서도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계층간의 상대적 박탈감을 완화시킬 수 있는 부의 재분배정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소비자는 외적인 기준보다는 실용적인 기준에서 저렴한 제품을 선택하고, 각종 제품정보를 입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소유보다는 사용 자체에 의미를 두는 소비의식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셋째, 소비자전문가나 소비자교육가는 소비자들의 소비행태나 의식이 왜곡되지 않고 건전한 소비행태와 소비의식으로 흐르도록 소비자교육 프로그램이나 유용한 관련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특히 알려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정보나 교육을 제공해주는 보완책이 필요하다. 넷째, 경제상황이 악화될 때, 소비자들은 저가격을 지향하고 고효율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소비행동을 변화시킨다. 따라서 기업도 이러한 소비자요구의 변화에 맞춰 군살과 거품없이 핵심기능만을 추구하는 상품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이때 기업은 소비자가 낮은 가격 뿐만 아니라 품질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게 되었음을 인지하고 실용적이고 내구성있는 제품 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김민정(1995) 객관적 가계경제복지와 주관적 가계경제복지의 상호관계,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2) 김숙이(1988) 도시가계의 경제적 만족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3) 대우경제연구소, 분기별 국내경제전망. 1998: 1/4~1999:2/4
- 4) 대한상공회의소, 「IMF시대의 소비행태와 구매 패턴 변화조사」, 1998년 5월
- 5) 통계청(1998), 도시가계조사.
- 6) 윤정혜·성영애(1998) “한·일·미 가계의 소비 구조 비교를 위한 한국가계의 소비표준 설정 방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3), 155-168.
- 7) 황덕순(1995) 가계의 경제적 불안과 대처행동, 경희대 박사학위논문.
- 8) Cambell, A., Converse, D. E. and Rodgers, W. L.(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NY: Russel Sage Foundation.
- 9) Caplovitz, D. (1979) *Making Ends Meet: Families Copes with Inflation and Recession*, Beverly Hills : Saga.
- 10) Harold-Goldsmith, R., Radin, N., and Eccles, J. S.(1987) “Objective and Subjective reality: The effects of job loss and financial stress on fathering behaviors,” *Family Perspective*, 22, 309-325.
- 11) Johnson, P. J.(1988) “Consequences of economic distress: the experiences of employed Southeast Asian refugees”,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12, 257-275.
- 12) Katona, G.(1960) *The Powerful Consumer*, NY : McGraw-Hill.
- 13) Katona, G.(1971) “1970 Survey of Consumer Finances,” Survey Research Center, U of Michigan, Ann Arbor, Michigan.
- 14) Kim, Kyung-Ja(1991) Economic Security, Household income and Household Characteristics, Ph. D. Dissertation, Univ. of Illinois.
- 15) Lorenz, F. O., Conger, R. D., Simon, R. L., Whitbeck, L. B., and Elder, Jr., G. H.(1991) “Economic pressure and marital quality: An illustration of the method variance problem in the causal modeling of family process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375-388.
- 16) Ournblil, A. B.(1983) *Economic Change and Consumer Shopping Behavior*, New York: Praeger Publishers.
- 17) Poser, G. and Shipchandler, Z. E.(1979) “Impact of Inflation on Consumer Lifestyle,” *European Journal of Marketing*, 13, 103-112.
- 18) Rao, C. P.(1980) “Some Projections on the Shopping Behaviors of Consumers in the 80’s and Their Implications for Retailing Management,” working paper.
- 19) Shama, A(1981) “Coping with Stagflation: Voluntary Simplicity,” *Journal of Marketing*, 45, 120-134.
- 20) Van Raaij, W. F. and Eilander, G.(1983) “Consumer economizing tactics for ten product

- categories,"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11, 169-174.
- 21) Voydanoff, P.(1984) "Economic distress and families: Policy issues," *Journal of Family Issues*, 5, 273-288.
- 22) Voydanoff, P. and Donnelly, B. W.(1988) "Economic Distress, Family Coping, and Quality of Family Life," In Patricia Voydanoff & Linda C. Majka (eds.), *Families and Economic Distress*, Newbury park, CA: Sage.
- 23) Voydanoff, P. and Donnelly, B. W.(1989) "Economic distress and mental health : The role of family coping resources and behaviors," *Lifestyles: Family and Economic Issues*, 10(2), 139-161.
- 24) Voydanoff, P.(1990) "Economic distress and family Relations: A Review of the eight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1099-1115.